

# 인사동은 그리운 추억을 보여준다.

글 : 아트칼럼니스트 박현진

계절에 따라 옷을 바꿔 입다 보면 어느덧 시간은 바람처럼 흘러 거울에 보이는 내 모습과 마음속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된다. 시간은 원하지 않았어도 본래의 모습을 지우고 있다. 산다는 것은 떡시루에 쪼갠 쌀과 물을 쌀듯이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과정에 있다. 산다는 것이 그리 거창한 것 같아도 사소한 것들이 쌀과물처럼 쌓이고 쌓여 개인의 역사를 만든다. 사소한 것들은 당시에는 고통과 환희, 기쁨과 슬픔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과 고통은 슬며시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추억만 가슴에 남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기억해야 할 것이 많아지나 보다.

우리에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서글픔을 자아내게 하지만 추억이 남아 있어 행복할 때가 있다. 살아오면서 많은 추억들 중에서도 어린 시절의 기억은 특히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 시절의 추억은 여전히 우리의 영혼 안에 살아있어 오늘을 사는 데 많은 힘을 주고 있어서다. 오랜만에 인사동을 찾았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물건들이 나를 반갑게 맞이한다. 또 그 시절의 물건들을 보면 물건들마나 스며있는 추억의 흔적을 만날 수 있어 인사동에 갈 때마다 가슴은 항상 설렘으로 북작거린다. 물어둔 기억을 들춰낼 때마다 가슴속에 기쁨이 차오르지만 그 중에서도 유년의 시절 가지고 놀던 물건들을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동심으로 돌아가게 해 준다.

인사동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전통 문짝이다. 지금은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되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창호지를 바른 문지방을 장식했다. 봄이면 방문을 떼어 마당 한 가운데 놓고 겨우내 쌓여 있던 먼지를 털어내고 창호지를 발라 햇살에 놓아두었다. 풀기 먹은 창호지는 손으로 툇기면 맑은 소리를 내곤 했었다.

봄날 산하에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를 꺾어 창호지 안에 넣고 풀을 발라 말리면 하얀색 창호지와 진달래의 진분홍의 꽃잎이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 같아 참으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어린시절 나는 유독 비 오는 날을 훨씬 참지 못했었다. 본래 짧아서 안타까운 봄이건만 그 짧은 봄날에 비만 오면 밖에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만 놀고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무척 답답했다. 창호지 밖의 풍경은 보이지 않고 후두둑 후두둑 마당가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 방안 가득 울려 퍼지는 것을 참지 못한 나는 손으로 침을 묻혀 창호지에 구멍을 내었다. 조그만 창호지 구멍 밖의 세

our in Korea



상은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었다.

봄비를 이기지 못한 목련꽃잎들은 뒷마루 앞을 수놓고 있었다. 그러면 좀더 밖을 보고 싶은 나는 창호지 구멍을 조금 더 크게 만들었고 어머니는 구멍구멍 난 문짝을 보시고 '창호지 바른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장난이냐고' 야단을 치시면서 다시 창호지를 올려서 덧바르셨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비만 오면 나는 창호지 문을 뚫기 여념이 없었다.

지금은 유리창 너머 세상을 다 볼 수 있어 손으로 창호지 뚫을 일이 없지만 강한 햇살에 노출되어 있는 창문을 보면 부드럽게 세상을 비추었던 창호지가 그립다. 인사동을 돌아다니다보면 흔하지 않는 물건을 만나

는 행운이 뒤따른다. 플라스틱 돼지 저금통이 흔하지만 청동으로 된 돼지 저금통은 귀했다. 돼지 저금통에 대한 추억을 누구나가 지고 있겠지만 나는 조금 특별했다.

나는 어린 시절 유난히 만화를 좋아해 만화가게 구석에서 하루를 보낸 적이 많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화 주인공에 빠져 저녁 시간을 놓친 나는 어머니에게 머리를 쥐어 박히고서야 자리에서 일어서곤 했다. 어머니의 야단도 소용이 없었다. 만화는 나에게 정보의 바다였고 상상 속의 미래가 거기에 다 있었다.

하지만 만화를 보면서 한없이 꿈을 키우기란 어린 나에게는 무리였다. 어머니의 야단보다 만화를 보는 것이 더 힘들었던 것은 돈을 내야만 만화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에게 받은 용돈으로는 군것질과 만화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만화는 왜 그렇게 장편이였는지... 미래의 꿈을 위해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비용이 어린 나에게는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돼지 저금통을 터는 것이었다. 한 번에 플라스틱 돼지 저금통을 박살내면 어머니에게 야단맞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칼로 저금통 입구를 조금 넓혀서 안에 들어 있는 동전을 끄집어



내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주변의 가족이 있나 없나를 살피면서 동전을 꼬집어내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또 혹시나 노파심에 동전을 한꺼번에 많이 빼면 들길까 처음에는 조금씩 꼬집어내었다.

돼지 저금통을 털어 만화가게의 출입이 잦아졌다. 그렇지만 몇 개의 동전은 만화 몇 편 밖에 볼 수가 없었다. 감질이 난 나는 조금씩 동전의 양을 늘려갔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오신 어머니에게 돼지 저금통을 터는 것을 들키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그 사건으로 정말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혼이 났다. 세상 버릇 여든까지 간다며 어머니 플라스틱 저금통을 버리고 비싼 청동으로 된 돼지 저금통을 구해오셨다. 그 다음부터는 나는 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만화가게 출입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친구들과 이야기꺼리가 사라져버렸고 병어리 냉가슴 앓듯 속을 끓이면서 그냥 만화가게 앞만 서성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어머니가 참으로 야속했지

만 지금 그것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나이 들수록 특별히 감흥을 받는 것이 없지만 어린 시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궁금했었다. 세상에 대한 감흥은 사라지고 없는 지금 인사동에서 손 때 묻어 있는 물건들을 통해 어린 나를 만난다.

삶이 진부하게 느껴질 때마다 어린시절 벽장 속에 숨겨 두었던 꿀단지에서 꿀을 훑쳐 먹듯이 잊고 있었던 어린시절을 가끔은 만나보는 것이 삶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그래서 인사동 가는 길은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즐겁다.

